

## 특수교육전공 학생들의 MMPI 검사에 나타난 성격

구분권\*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약》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특수교육 전공 342명의 학생들에게 MMPI를 실시하여 성격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전체 학생의 10개의 하위검사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히스테리(Hy)점수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강박증(Pt)과 정신분열증(Sc) t점수들이 시대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건강 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에서 증가하고 편집증(Pa),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경조증(Ma)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t 점수에서 70이상을 보인 학생이 232명(67.8%)이다. 그 중에 1998년에 49명(68%)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높은 점수의 하위 검사들은 반사회성(Pd),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의 순위로 나타났다.

주제어 : 특수교육 전공, MMPI, 성격,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사범계열에 입학하는 예비교사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특수교육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아동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비중 있게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의 정신건강이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성격 특성은 장차 교직의 수행에서 아동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특별히 특수교사는 치료·교육을 요구하는 장애아동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윤혜경, 1991). 따라서 성격과 관련하여 교사의 태도가 아동의 학습에 긍정, 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Tinsley,1993). 특수교사는 개별적으로 아동들에게 더 깊이 개입하고 아동과 상호작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사 아동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성격과 관련되어 개인차에 있다( 임승현, 1996; 이현숙, 2004, ; 구분

\* 교신저자(koobk@kangnam.ac.kr)

권, 1997). 정서적으로 우울한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적거나 피드백을 적게 한다(조용태, 2002; 구본권, 2006). 따라서 교사의 성격은 아동의 치료·교육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윤혜경, 1991).

성격의 내향성과 외향성에 따라 교사의 성격 성향은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이 더 많고, 내향적인 사람은 감각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는 내향성이 우세하고 특수교사는 감각형이 특성으로 나타났다(단현국, 1998, ; 여광웅, 임지향, 1999, ; 임승환 민경환, 2000, ; 서준석, 2001).

교사들의 성격과 관련하여 정(情)에서 특수교사보다는 일반교사의 정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하경, 1991; 조용태, 2002). 특수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보다 정서 안정에서 더 우려하는 이유 때문에 연구자들은 특수교사는 일반 교사에 비하여 정신건강에 더 주목할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이현주, 1993).

내외 성격유형과 병리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내향적인 사람은 독립, 융통성이 적고, 지나친 걱정으로 과업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Balogh, 1985. ; Ekstrom, 1988). 그들은 적절한 감정표현이 어렵고 자기의 내면적인 탐색에 더 관심을 가지며, 개인의 고통스런 이유를 내부로 귀인 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탐색은 대학교 상담실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민경환, 2005).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MMPI 결과에서 우울증, 사회적 내향성으로 나타나고 이들의 정신병리적 특징은 편집증, 정신분열증으로 나타났다(임승환, 민경환, 2005). 따라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에 성격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하여 반사회성, 편집증에서 높게 나타났다(임승환, 1996).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성격이 교직의 적성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가정하는 이유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국내 기업에서 신입사원 선발이나 각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재학생들에게 성격이나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이유는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예측하거나 대학에서 전공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MMPI 검사는 그 점수에 따라 공군사관학교 낙오자를 가려내는 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대학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고, 학업이나 생활을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Tinsley, 1993. ; 이현주, 1993). 따라서 MMPI 결과는 대학생들의 정신 병리적인 특성과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격검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성검사 중에 MMPI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추천되고 있다(김영환, 1989, Gynther & Gynther, 1983., ; 이현숙, 2004). 이미 오래 전부터 정신신경과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MMPI는 정상적인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진로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였다(Whatley, 1994., ; 김영환, 1989).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재학시절에 상담이나 갈등이 많고 학업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개인적으

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은 이유들이 성격특성과 관계가 있다(구본권, 1997). 그리고 대학에서 전공을 바꾸는 학생이나 학업에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의 이유가 성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구본권, 1997). 더 나아가 교직에 만족이나 불만은 교사들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고, 교사의 책임과 역할은 교사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oldman, 1969. ; Locke, 1976). 일반적으로 교사의 직무에 만족하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 간에 차이가 있다(Kristy, 2002).

교직에서 불만이 있는 일반교사·특수교사 비교 연구에서 특수교사 집단에게서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일반 교육교사 집단에서 불만이나 만족 상하 집단에 차이가 없다(임승현, 1996). 따라서 특수교사가 일반교육 교사보다는 사회의 규범이나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 적대적인 특성이 내재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이 가능하다(임승현, 1996). 그러나 지금까지 MMPI 검사들이 대학생들의 특정한 전공이나 집단적 특성을 밝히거나 경험적인 연구는 없다. 따라서 교사의 MMPI 특성 연구는 특수교육 전공하는 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밝히는 의의와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전공학생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양성과정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교사양성 교육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문제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전공 학생의 MMPI 검사에서 나타난 성격특성과 년도 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II. 연구 방법

### 1. 대상

지난 12년 동안 ABC대학교 특수교육 전공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342명(여자 288명, 남자 54명)의 연도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lt;표 II-1&gt;

연도별 남녀 학생 수

년도	m	f	T
1991	7	35	42
1992	9	29	38
1993	4	35	39
1994	6	25	31
1995	6	29	35
1996	1	7	8
1997	2	15	17
1998	7	24	31
1999	0	6	6
2000	2	39	41
2001	4	25	29
2004	6	19	25
계	54	288	342

## 2. 도구 및 자료처리

특수교육 전공 남녀학생들에게 다면적 인성검사(MMPI ; 김재환 외 가이드스센터)를 실시하였다.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검사의 목적과 실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매학기 학생들에게 인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목적과 도구를 소개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시행하는 검사를 설명하고 학교에서 가장 제약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채점하고 하위 10개 검사 소점을 얻어 t점수를 환산하여 남녀 학생의 각각 평균과 편차를 얻어 t 검증하였다. 점수의 시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즉 1991년부터 94년, 95년부터 98년, 그리고 99년부터 04년까지 세 그룹으로 나누어 10개의 하위 검사에서 얻은 점수 간에 차이를 f 검증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하위검사에서 t점수 70이상 그리고 30이하 얻은 학생이 얼마나 있는 가를 알아보았다.

### III. 결과

#### 1. 전체 남녀 학생의 하위검사 비교

전체 남녀 학생의 10개의 소 검사의 점수를 산출하고 t 점수로 환산하여 얻은 평균 점수와 차이를 비교한 차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남녀 학생의 평균 차이 n=342

	sub test	sex	n	M	SD	t	P
건강염려 Hs	m	54		52.14	16.24	.716	.475
	f	288		50.72	12.81		
우울증 D	m	54		50.37	10.30	.946	.345
	f	288		48.87	10.69		
히스테리 Hy	m	54		55.09	10.22	2.533	.012 *
	f	288		51.37	9.826		
반사회성 Pd	m	54		56.25	13.49	1.933	.054
	f	288		52.57	12.72		
남향여향 Mf	m	54		51.38	10.10	-.456	.649
	f	288		52.10	10.65		
편집증 Pa	m	54		51.00	9.87	1.165	.245
	f	288		49.20	10.46		
강박증 Pt	m	54		48.35	18.34	.950	.343
	f	288		46.02	16.12		
정신분열 Sc	m	54		51.38	18.91	1.627	.105
	f	288		47.37	16.18		
경조증 Ma	m	54		50.01	13.83	-.182	.856
	f	288		50.35	12.30		
내향성 Si	m	54		48.31	10.80	1.016	.310
	f	288		46.64	11.09		

\* p<.05

전체 남녀 학생의 10개 하위 검사 t점수 평균에서 히스테리(Hy)점수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9개의 하위 검사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균 점수에서 반사회성(Pd)이 가장 높고, 다음이 히스테리(Hy), 남·여 향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반사회성(Pd)과 정신분열증(Sc)에서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 2. 년대별 검사의 평균

지난 10년간에 학생들의 검사점수에 년대별 집단과 비교하였다. 즉 1991년-1995년,



10개 하위 검사에서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4개 소 검사에서 각각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관한 사후 검증을 위하여 다중 비교를 하여 가장 많이 차이가 난 연도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사후 개별 비교

sub test	(J)년도2	(I)년도2	M 차(I-J)	표준오차	P
Hs 건강염려증	1991-1995	1996-1999	1.2237	1.96436	.869
		2000-2004	-2.0208	1.68961	.487
	1996-1999	1991-1995	-1.2237	1.96436	.869
	2000-2004	-3.2445	2.18548	.347	
	2000-2004	1991-1995	2.0208	1.68961	.487
		1996-1999	3.2445	2.18548	.347
D 우울증	1991-1995	1996-1999	-1.2365	1.55267	.745
		2000-2004	-3.1841	1.33550	.099
	1996-1999	1991-1995	1.2365	1.55267	.745
	2000-2004	-1.9475	1.72744	.526	
	2000-2004	1991-1995	3.1841	1.33550	.099
		1996-1999	1.9475	1.72744	.526
Hy 히스테리	1991-1995	1996-1999	-2.9041	1.45544	.177
		2000-2004	-2.1622	1.25187	.255
	1996-1999	1991-1995	2.9041	1.45544	.177
	2000-2004	.7419	1.61928	.964	
	2000-2004	1991-1995	2.1622	1.25187	.255
		1996-1999	-.7419	1.61928	.964
Pd 반사회성	1991-1995	1996-1999	6.1677	1.86528	.019 **
		2000-2004	-.2737	1.60438	1.000
	1996-1999	1991-1995	-6.1677	1.86528	.019 **
	2000-2004	-6.4414	2.07524	.029 **	
	2000-2004	1991-1995	.2737	1.60438	1.000
		1996-1999	6.4414	2.07524	.029 **
Mf 남향여향	1991-1995	1996-1999	-2.2882	1.54935	.350
		2000-2004	-.6740	1.33265	.941
	1996-1999	1991-1995	2.2882	1.54935	.350
	2000-2004	1.6143	1.72376	.647	
	2000-2004	1991-1995	.6740	1.33265	.941
		1996-1999	-1.6143	1.72376	.647
Pa 편집증	1991-1995	1996-1999	-3.9943	1.50592	.064
		2000-2004	1.0330	1.29529	.744
	1996-1999	1991-1995	3.9943	1.50592	.064
	2000-2004	5.0273	1.67544	.035 **	
	2000-2004	1991-1995	-1.0330	1.29529	.744
		1996-1999	-5.0273	1.67544	.035 **

<표 3> 계속

Pt 강박증	1991-1995	1996-1999	3.8171	2.33594	.287	**
		2000-2004	10.4100	2.00922	.000	
	1996-1999	1991-1995	-3.8171	2.33594	.287	
		2000-2004	6.5929	2.59889	.078	
Sc 정신분열	1991-1995	1996-1999	4.2239	2.36661	.236	**
		2000-2004	10.3275	2.03560	.000	
	1996-1999	1991-1995	-4.2239	2.36661	.236	
		2000-2004	6.1036	2.63301	.110	
Ma 경조증	1991-1995	1996-1999	4.0296	1.83156	.132	
		2000-2004	1.6657	1.57538	.569	
	1996-1999	1991-1995	-4.0296	1.83156	.132	
		2000-2004	-2.3638	2.03773	.507	
SI 내향성	1991-1995	1996-1999	-.0436	1.62679	1.000	
		2000-2004	-.0450	1.39926	1.000	
	1996-1999	1991-1995	.0436	1.62679	1.000	
		2000-2004	-.0014	1.80992	1.000	
	1991-1995	1996-1999	.0450	1.39926	1.000	
		2000-2004	.0014	1.80992	1.000	
	1996-1999	1991-1995	-.0014	1.80992	1.000	
		2000-2004	.0014	1.80992	1.000	

\*\*p< .05

<표 3>에서 보면 반사회성에서 1996-1999년에, 1991-1995년에 그리고 1996-1999년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편집증에서 2000-2004년에 그리고 1996-1999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강박증에서는 2000-2004, 1991-1995년에 차이가 났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에서는 2000-2004, 1991-1995, 1996-1999년에 각각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 3. t점수 70점 이상과 30점 이하를 나타낸 학생

MMPI 하위검사에서 정상의 범위에서 높거나 낮은 학생을 년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t점수 70이상과 30이하의 학생을 각각 찾아서 다음 <표 4> 와 <표 5> 에 제시하였다.

1) t 점수 70이상을 받은 학생

검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10개 소 검사에서 t점수 70점 이상 받은 학생은 232명이고, 이에 연도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t 점수 70 이상 학생 수 n=342

년도	척도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T
1991	4	0	3	5	2	6	2	6	4	0	32
1992	5	0	0	3	1	1	10	9	5	0	34
1993	3	1	4	4	2	1	2	2	3	0	22
1994	7	1	0	8	0	2	3	3	2	2	28
1995	1	1	0	5	1	0	0	0	1	2	11
1996	0	0	0	1	0	0	1	1	1	0	4
1997	0	1	2	0	1	0	0	0	0	0	4
1998	0	5	10	1	9	2	9	4	0	9	49
1999	0	0	0	0	0	0	0	0	0	0	0
2000	4	3	3	5	0	0	2	3	1	5	26
2001	2	0	2	6	1	2	0	0	2	1	16
2004	1	1	0	0	2	1	0	0	4	0	9
계	27	13	24	38	19	15	29	28	23	16	232

표 4를 보면 전체 342명의 학생 중에 정상범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총 232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나타난 소 검사는 반사회성(Pd)38명, 강박증(Pt)29명, 정신분열증(Sc) 28명, 그리고 건강염려증(Hs), 히스테리(Hy), 남향 여향(Mf), 내향성(Si), 편집증(Pa), 우울증(D)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연도 별 인원에서는 1998년도에 49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1992년, 1991년, 1994년, 2000년, 1993년 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사회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1994년 8명, 2001년 6명, 1991, 1995, 2000년에 각각 5명의 학생이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적게 나타난 소 검사는 우울증(D)과 내향성(Si)이다. 이들에 연대별 집단에서 91-95년에 127명(68%), 96-99년에 57명(62%), 00-04년에 51명(53%)이 나타나 높은 척도를 보인 학생들이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t 점수 30 이하를 받은 학생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참여한 전체 학생들이 하위 10개 각 소 검사에서 t점수 30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157명이고 이들이 연도별로 각각 얼마나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4> 와 같다.

<표 5> t 점수 30이하 학생 수 n=342

년도	척도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T	
1991	4	4	2	1	1	0	1	2	0	3	18	
1992	8	3	0	0	0	1	9	6	4	2	33	
1993	0	2	2	1	2	0	2	1	0	2	12	
1994	0	1	0	1	1	1	0	0	0	1	5	
1995	0	0	0	0	2	0	1	0	1	0	4	
1996	0	0	0	0	0	0	0	0	0	0	0	
1997	1	2	0	3	0	1	6	3	3	1	20	
1998	0	1	0	1	0	0	0	0	0	0	2	
1999	0	0	1	0	0	0	0	0	0	0	1	
2000	0	1	0	1	0	2	2	5	2	1	14	
2001	3	1	0	0	0	1	22	14	3	1	45	
2004	0	0	0	0	0	0	0	0	1	2	3	
계	16	15	5	8	6	6	43	31	14	13	157	

<표 5>에서 보면 2001년도의 t점수 30이하에서 4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검사에서 강박증(Pt) 43명, 그 다음으로 정신분열증(Sc) 31명이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적은 소 검사는 편집증(Pa) 남향, 여향성(Mf)이 각각 6명이다.

소 검사에서 t점수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 해는 2001년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992년, 1997년, 1991년 순위로 나타났다.

t점수 30 이하를 받은 학생이 없거나 가장 적은 연도는 1996년이다. 1996년에는 한 명도 없고, 1999년 1명, 1998년 2명, 2004년에 3명이다. 그리고 소 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2001년에 강박증(Pt)22명 그리고 2001년 정신분열증(Sc)14명이 나타났다.

####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3년간에 ABC대학교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에게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실시하여 성격특성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와 그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학생의 10개의 하위검사의 t점수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일하게 히스테리(Hy)점수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반사회성과 정신분열증에서 남학생들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특히 히스테리점수에서 남학생들이 여자보다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집단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히스테리는 여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그 결과는 반전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스트레스 대응에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잘 한다는 생각이나 히스테리는 그 특성이 성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 따라 성별을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 될 수 있는 편견이다. 여자들의 여 성향에 비하여 남자들이 여자 성향을 가진 학생들의 스트레스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히스테리는 성과 관계 없이 특정한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사범계열 남학생들의 특성이 히스테리 특성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교직에서 히스테리가 높은 남자 교사에게서 더 만족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 교사는 여자교사보다 히스테리가 높은 남자교사들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정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 이미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특수교육교사의 MMPI 특성은 남녀모두 내향적인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오테석, 1993). 그러나 이번 연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적은 것이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대학생들은 자기 성격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대학에서 부적응하는 학생이 내향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일반교사보다 특수교육교사들이 반사회성, 편집증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서 우울증, 사회적 내향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내향적인 특성은 어떠한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사람을 대응하기 어렵고, 지나친 걱정과 사람을 회피하는 특성과 가깝다. 자신의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적절한 감정표현이 어렵고 자아 강도가 낮기 때문에 편견을 갖기 쉽다.

히스테리 문항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낸 행동은 “목록에 무언가 짝 맞힌 것 같은 때가 있다.” “항상 우울한 편이다.” 내가 왜 화를 그렇게 내고 토라졌는지 나 스스로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이외에도 결심을 빨리 못하고 심장이나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일이 일반사람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항목에 예라고 표시하였다. 이 같은 사람은 자기에 불만이 크게 내면화되어 불안이 소제에 따라 다르게 이동되고 불안정으로 방황하고 피로에 지치기 쉽고, 사실이 아닌데 자신이 사실처럼 말하고 그들

의 감정을 벗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사람에게 편집증, 정신분열증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임승환, 민경환, 2005).

ABC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에서 2005년 신입생 전체 성격검사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에서 전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지표를 나타냈으나 전공별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특수교육 전공학생들은 부적응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격요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도 지지해주는 자료이다(이경민, 2005).

둘 째 지난 13년 특수교육전공 학생들의 MMPI 점수들이 어느 때 가장 변화하였는가? 10개 하위 검사에서 4개의 검사에서 차이가 있었다.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에서 증가하고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변화가 없는 검사는 내향성, 남향성 여향성, 반사회성에서 나타났다. 강박증과 정신분열증 점수에서 1991-1995년과 2000-2004년 사이에 큰 차이가 났다. 그리고 지난 1991년부터 다음 척도(Hy, D, Hy, Pd, Pt, Sc)점수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신 병리의 특성에서 자기 불만이나 반사회적 경향이 사회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불안감소 경향과 비슷하다. 이는 개인의 억압에서 나타나는 성격 발달과 밀접한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셋째 하위 검사 t점수에서 70이상 높은 학생은 총 342명중에 232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반사회성(Pd)38명, 강박증(Pt)29명, 정신분열증(Sc)28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높은 점수가 나타난 1998년도에는 49명이나 된다. 그 해 학생들의 68%의 학생들이 위험 수준에 경계선이나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 높은 점 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점수만으로 정신건강의 정도를 해석하거나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집단에서 MMPI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연구자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MMPI 점수의 상승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정상인들의 점수들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이현주, 1993). 그리고 대학생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학력 집단에 특성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대학교 학생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병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지능과 자아 강도에서 높은 변인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점수를 완화시켜주는 해석이 가능하다(이현주, 1993, ; 박원희, 2003). 따라서 척도에서 상승하는 경향은 반드시 정신 병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의 MMPI검사에서 나온 점수가 상승하여 정신과에서 진단 받은 환자의 행동과 다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정상인의 집단에서 t점수는 모두 정상범위(30-70)에 있다. 그러나 높은 사람도 자기를 효과적으로 노력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주, 1993).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에서 상승하는 이유를 건강한 정상인의 반응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혼란이 된다. 그 이유는 경험적인 해석이 없이 연구결과만으로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이

현주, 1993., ; 이경아, 1999).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그 이유를 보다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과제로 채택하였다.

연구자의 경험적으로 특수교육교사의 성격 특성은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기대에 따라 옳은 일과 가치에 따라 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책임감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기 때문에 전공 선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자신만만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말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헌신하며 사회적 화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게으르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과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교직에서 성실하게 근무 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은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이 적거나 소외될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속감을 추구하기 위하여 피로할 정도로 일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학급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좌절감이나 화가 나서 상처를 받기 쉽다.

또 한편으로 이미 다른 연구에서 한국의 교사의 정서와 감정이 억압의 특성으로 지적하여 사범대학 학생들은 장차 그들의 교사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일반교사 보다는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다. 그러나 특수교육 교사 보다는 일반교사의 정 수준이 더 높다(김하경, 1991; 조용태, 2002). 이러한 의미는 이번 연구의 주제가 특정대학교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이고, 그동안 교사의 정신건강과 그렇지 못한 교사의 영향력이 교육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관련된 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연구과제로 상정한다.

아동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와 관련하여 그들의 성격특성은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의 한계로 과제만을 제시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반대로 10개 각 소 검사에서 t점수 30점 이하를 받은 학생 157명(45.9%)이다. t 점수 30이하 점수는 2001년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t 점수에서 70상 받은 학생과 30이하 얻은 학생의 비율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점수에서 최고의 점수와 최하위 점수의 학생들이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t 점수 30이하를 받은 학생보다는 70점 이상 얻은 232명의 학생에 비하면 75명이 적다. 30이하 점수의 학생들이 70이상 점수 학생들에 비하여 적으나 이들 학생들이 별도로 학생들이 인지 또는 반대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범위에 또 다른 집단에 특성이 혼동하는 것인지는 이번 연구서 알아보지 못했다.

성격과 관련한 몇 가지 유사한 연구를 비교하면 특수교사들이 직무에 만족하면서도 정신건강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적성과 성격에 약점은 우연적인 관계인가? 이에 관한 확인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 한 연구이지만 이를 밝히는 연

구는 보다 많은 사범대학 학생과 그리고 현장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사의 정신건강을 적성에서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성격과 정신건강은 적성과 직무에서 일어나는 상호적인 관계이며 연속적인 차원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특수학교 교사들의 정신건강 지각수준에 따라 직무에 만족이나 불만으로 나타나지만 정말로 자기만족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은 개인의 고유한 역사에서 경험한 문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요인들과 복잡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언젠가 특수교육 전공학생들에게 교사의 적성에 비추어 자기 단점을 하나 적게 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진술하게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의 부족으로 열등감이 많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신감이 있건 없건 그들이 그렇게 진술한 것은 교직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격이 불안의 특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이 장차 교단에서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범계 입학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서 건강한 학생을 선별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에서 정신건강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대학 입시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단 몇 시간 내에 면접이나 논술에서 정신이 건강한 학생을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정신건강 기준이나 준거들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가?

정신건강을 가려내는 몇 가지 심리검사 도구들이 양적으로 선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예컨대 어떤 검사도 마음을 먹으면 자신의 단점을 거부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지금껏 교사의 정신건강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그리고 교직에서 어떤 영향력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경험이나 사례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정신건강을 담보로 교직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방향이 하나 있다면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질적인 관리에서 가능하다. 사실 사람의 정신건강에서 믿을 만한 지표는 어린 시절부터 보낸 경험과 타고난 품성을 자기가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자는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과 경험적으로 반성해보면 대학에서 졸업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거나 교원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졸업을 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경청하였다. 그들에게 주목 할 것은 미리 선정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상담이 있어야 할 학생들이다. 중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연구자의 경험적으로는 그들은 너무 한곳에 고착되어 합리적인 자기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이다. 그러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첫 번째 건강한 교사를 선별하는 대안 중에서 하나는 대학에서 유·초·중·고등학교 정보들을 공유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유치

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누가 기록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전공에서 보다 심도 있고 성숙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진작 학생들의 자기결정에 가장 큰 약점을 그들에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대학이 어떻게 이끌어 내야하는가? 이제 대학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쯤에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연구에서 내어놓고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끝으로 이번 연구에서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의 성격특성을 연구과제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성격과 정신건강이 밀접히 관련되고 지속적인 특성이 교직에 영향과 만족에 영향을 주는 과제이다. 정신건강은 사회 문화나 기대에서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밀접한 요인이 성격이다(APA, 2000).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에게 MMPI 특성 연구는 국내에서 특수교육 전공학생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 이에 관련하여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의 특성 연구는 질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구본권(1997). **예비교사의 정신건강, 사범계 학생 적성선발에 관한 세미나**, 강남대학교 사범계 열대학.
- 김영환(1987). **다면적 인성검사(MMPI)**, 서울 ; 가이던스 .
- 김영환(1987). 다면적 인성검사에 의한 성격평가 ; 학교에서 심리검사의 활용, **한양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주최 제 2회 학술회집**.
- 김지선(2002). **방송대학생들의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특성연구 : MBTI 검사결과 중심으로, 원격 교육논총 제16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 김하경(1991). 특수아동과 특수교육에 대한 정규 및 특수교사의 태도분석과 비교,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 노주선(1994). MMPI 성격장애 척도의 구조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단현국(1998). 유치원 교사의 성격 특성과 교사 신념,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 박원희(2003). MBTI로 본 교사성격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서석준(2001).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 MBTI의 4가지 심리기능과 교류분석의 Ego- Gram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광웅·임지향(1998). MBTI를 통해본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성격유형 특징, **발달 애학회지, 제 2권**, 한국발달장애학회.
- 이경아·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 존중 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13-226.
- 이경민(2005). 강남대신입생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 12호** 강남

- 대학교 학생종합인력개발센터.
- 이은주(1999). 한국 특수교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기초연구 : 현장 교사들의 시각, 한국초등특수교육학회, **초등특수교육연구**, 1권, 1호.
- 이현숙·정현희(2004). 학교-기반의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회적 기술, 불안, 우울, 자아 존중 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79-99.
- 이현주(1993). MMPI 개별척도와 관련된 정상인의 행동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임승환·민경화(2000). 서울대 내담자들의 성격유형과 임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MBTI 와 MMPI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생연구** 34,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임승현(1996). 특수교육 교사와 일반교육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성격특성,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석사논문).
- 오태석(1993).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대한 지각수준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윤혜경(1991).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일반아동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청각자료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준석(2001).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 상태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필순(1999).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조용태(2002). 교사의 정(情)수준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비교, **발달장애학회지**, 한국 발달장애학회.
- 최영하(1993).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대한 지각수준연구, 대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exy, William D. ; Webb, Patrick M(1999). Utility of the MMPI-2 in Work-Hardening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44(3), Aug 1999, 266-27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2002). *Diagnostic Criteria from DSM-IV-TR*, APA.
- Balogh, Deborah W.; Merritt, Rebecca D(1985). Susceptibility to Type A backward pattern masking among hypothetically psychosis-pron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377-383.
- Cohart, Mary S(1953). *The Differential Value Of The Group Rorschach And The MMPI in The Evaluation of Teacher Personality*, Yale University.
- Cogan, Rosemary; Porcerelli, John H.; Dromgoole Ekstrom, S.R(1988). Jung's typology and DSM-III personality disorder; A comparison of two systems of classification,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33. 재인용.
- Gynther, M.D., Altman, H., & Sletten, I. W.(1973). Repicted correlates of MMPI twopoint code tyes : The missouri actuarial syste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ical*, 29, 263-289 재인용.
- Kristy(2002). Psychodynamics of partner, stranger, and generally violent male college students. *Psychoanalytic Psychology*. 18(3), 515-533.
- Oldroyd, Richard J ; Pappas, James P; Hart, Darrell H(1973). A comparison of three personality inventories as screening instruments to select effective teachers. *Journal of the Student Personnel Association for Teacher Education*. Vol 12(2). 45-53.
- Newman, Martyn L., Greenway, Philip (1997). Therapetutic Effects of Proviofng MMPI-2 Test Feedback to Clientics at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 Collaborative Approach,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9. 2. 122-134.
- Tinsley, Diane J.; Tinsley, Howard E.; Boone, Shirley; Shim-Li, Crystal(1993).

- Prediction of scientist-practitioner behavior using personality scores obtained during graduate schoo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Oct 1993, 511-517.
- Whatley, P. Richard ; Allen, James; Dana, Richard H(2003).Racial Identity and the MMPI in African American Male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4), Nov 2003, 345-353.

K C I

## The MMPI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pecial Education

Koo, Bon Kwon  
Kang Nam Univers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342 students who majored in special education. Those 342 participants completed the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from 1991 to 2004. First, the result indicated that male participants had a higher mean t-score in 10 sub-tests than female participants. In particular, male participants had significantly higher t-scores in Hysteria scales than female participants. Seco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n annu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scores in Psychasthenia and Schizophrenia. t-scores increased in Hypochondriasis, Depression, and Hysteria scales, and decreased in Paranoia, Psychasthenia, Schizophrenia, and Hypomania scales. Third, 232 participants (67.8% of 342 participants) had 70 or above in t-scores. Among those 232 participants, 49 participants (68% of 232 participants who had 70 or above in T-scores) had the highest mean t-score in 1998. The high mean t-scores in sub-tests were showed in Psychopathic Deviation, followed by in Psychasthenia and in Schizophrenia.

Key words: Special education student's, MMPI, Personal Characterist.